

新 사찰 건축

14.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구 전통불교문화원)

“불교건축이 현대건축에서 공백으로 기록된 까닭이 조선시대 승유배불 정책의 사유가 크긴 해도 현대에 이르러서도 불교계의 옛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불교의 본질에서 어긋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를 이 건축의 건축가로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그 쪽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2009년 6월 11일 충남 공주 태화산에 한국문화연수원이 세워졌다. 불사는 건축가를 결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건축가를 선택하는 일이 건축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축의 형태를 ‘고르느냐’ 작업이 아니라 ‘시대적 요청’에서 출발한 한 건축가의 ‘건축관(建築觀)’을 받아들이는 문제였다. 건축가는 2002년 건축가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건축가 승효상(62·이로재 대표) 씨였다. 그의 건축관은 ‘진보’와 ‘달아’ 있는 것이었으며, 그 진보는 ‘옛 것’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려는 ‘생각’이었다. 건축의 의뢰자인 대한불교 조계종은 불교건축이 현대건축에서 공백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말하는 건축관에 동의했다. 그리고 그의 건축을 받아들였다. 한국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은 현대건축에 기록되기를 바란 불교건축이다.

‘마당’, 우리 고유의 건축언어

“나는 불교 건축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비움이었으며, 불교의 본질이었다. 그래서 비움은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의 중요한 개념이 되어야 했다.”

대지면적 14,867.00㎡, 건축면적 5,745.93㎡, 연면적 9,600.45㎡의 연수원은 크게 교육행정동과 숙박후생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교육행정동은 중앙의 마당을 중심으로 한 ‘ㄷ’자 형태로 지어졌고, 일곱 개의 동으로 구성된 숙박후생동은 동과 동 사이를 길이라기 보다는 마당이라는 느낌의 공간으로 있고 있다.

연수원은 건축가의 말대로 ‘비움’으로 시작된 건축이다. 그 비움의 실천은 ‘여백’이고, 그 여백의 구체적인 이름은 ‘마당’인 것이다. 마당은 우리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개념이다. 연수원은 마당을 건축의 중심에 놓았던 우리 건축의 전통적인 구조를 기본 틀로 한 건축이다. 각 건물들은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됐다.

우리 전통 건축을 서양처럼 기둥이나 지붕 같은 요

소의 양식으로 분석, 분류하여 한국건축의 특성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건축가는 말한다. 물질적 풍요보다 청빈나도를 통경한 우리 선조들의 건축은, 국악이나 전통회화나 음과 음의 사이나 화면의 여백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던 것처럼 건물 자체가 아니라 방과 방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또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한 것이다. 즉 단일 건물보다는 ‘집합’으로서의 건축적 조화가 우선이었던 이유로 그 집합의 중심에 놓이는 비움의 공간 마당은 우리 건축의 ‘키’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건축의 마당은 서양인들이 건물과 대립적 요소로 사용한 정원과는 다른 것이며, 기후에서 비롯된 중동의 정원과도 다른 것이고, 관상의 의미가 큰 일본의 정원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주거에서 뿐만 아니라 사찰, 서원, 궁궐 등 모든 건축에서 그 중심에 자리하는 우리의 ‘마당’은 때로는 작업공간으로, 때로는 공동공간으로, 혹은 축제의 공간으로, 심지어는 사유를 위한 공간으로 그 의미와 기능의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의 마당은 우리의 고유한 건축 언어이며, 문화적 가치인 것이다.

연수원 부지로 책정된 사곡면 마곡사로 1065번지 일대는 조선시대 가마터였다. 설계 전에 기와가마 56기와 그와 관련된 부속시설인 수혈수구 30여기들이 발굴됐다. 부지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이 건축금지 지역으로 고사됐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비움의 건축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시작됐다. 부지 중앙의 많은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비워야 했다. 자연스럽게 건물들이 여백의 끝에 놓이면서 마당을 중심으로 한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다. 연수원 안에는 많은 마당들이 독립적으로, 혹은 이어지면서 건축의 테마를 이룬다. 여기에서 건축물들은 그 마당을 한정하는 요소이고, 많은 마당들은 스스로 존재방식을 가지고 연결되면서 주변의 풍경과 거주자의 일면을 담는다.

건물들의 특징

건물들은 방광형태의 여러 매스들이 기반 위에 얹혀있는 형태다. 건물의 외벽재료는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돌과 나무로, 흙에 묻힌 옹벽부분은 자연석, 기반부분은 화강석으로 마감했다. 교육행정동의 강의실은 마당을 중심으로 주위 돌레를 따라 배치됐고,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사이를 비워 그 틈새로 주변 풍경을 볼 수 있고, 빛과 바람이 흘러들 수 있게 했다.

마당은 멀리 태화산 줄기와 가깝게 마곡천 계곡으



2009년 6월 완공된 한국문화연수원은 우리 건축의 기본인 ‘마당’을 중심으로 둔 건축으로 ‘비움’의 미학을 담고 있다.

시대적 요청의 건축관 수용

2009년 6월 준공·설계 승효상

우리 건축의 ‘마당’ 기본틀로

나무, 돌 사용 주변과 조화

로 열렸고, 마당 한 쪽 끝의 수반 위에 불상이 모셔져 있다. 이 마당은 안과 밖, 자연과 건축, 사람과 사람이 있다. 교육행정동은 강의와 교육,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홀, 대강의실, 소강의실, 분담 토론실과 선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방은 휴식으로 마감되어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해 신체 및 불교 관련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약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후생동은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숙박과 식사를 포함한 후생 및 편의 시설로서 숙소와 식당, 다실, 관리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숙박후생동은 많은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건축물 사이로 길게 경사진 마당은 담장으로 구획된 숙소의 크고 작은 마당으로 연결되어 있다. 경사진 지형의 흐름에 따라 크지 않은 건물을 배치하여 주변 풍경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고, 최저층 부분에 서비스를 위한 공간을 두고, 마곡천 계곡을 따라 식당을 배치하여 넓은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후생동의 객실은 전통 한식 이미지의 공간으로, 1층에 위치한 객실은 각 동마다 변화

있게 가꾸어진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했고, 2층의 객실은 먼 풍경까지 조망할 수 있게 배치해 각 동과 방마다 서로 다른 조망을 갖는다. 숙박후생동의 각 마당은 마사토마당, 박석마당, 이끼마당, 연지, 화계 등 각 마당마다 특색을 지니고 있다. 조경에 사용한 수목은 배롱나무, 단풍나무, 연, 불두화 보리수 등 사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종을 택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량

세계적으로 문화가 ‘함’이 된 지 오래다. 때문에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는 ‘문화’를 키우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 자기문화, 자기사상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우리의 문화를 알고 키우는 일에 소홀할 수 없을 것이다. 오랜 세월 우리 문화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온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통과 화합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수원은 ‘한국 문화의 세계화’, ‘불교문화의 대중화’,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위해 건립된 연수원이다. 한국문화연수원 건축불사는 우리의 문화를 ‘알고 키우는’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연수원 건축은 외형적인 면에서는 ‘옛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진보적인 현대건축을 선택했고, 그 밑그림은 우리의 전통 건축의 문화적 가치에서 시작했다. ‘옛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노력이 문화를 키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옛 것’을 잊지 않은 일은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보존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수용한 본 건축은 연수원 건립의 취지와도 부합되

는 것이라 하겠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의 도량인 것이며, 그 도량이 시대적 요청을 수행해 나가는 일은 우리 문화의 힘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불교’가 우리 문화를 알리고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국문화연수원’이라는 불사는 그런 우리의 문화적 소임을 펼치기 위한 도량의 마련인 것이다.

글·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건축가 승효상은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비엔나공과대학에서 수학했고, 15년간의 김수근 문화를 거쳐 1989년 이로재를 열었다. 수졸당, 수백단, 웰컴시티, 대전대 해화문화관 등으로 여러 건축상을 수상했다. 파주출판도시의 코디네이터로 새로운 도시 건설을 지원한 그는 2002년 미국건축가협회 명예펠로우의 자격을 부여받고, 같은 해 건축가로서는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다. 1998년 북 런던대학의 객원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강의 하고 있다. 저서로는 <빈자의 미학>과 <지혜의 도시 지혜의 건축>, <Works:10x2>, <건축, 사유의 기호>, <비움의 건축> 등이 있다.



숙박후생동은 여러 마당으로 연결되어 있다.



마당을 중심으로 한 ‘ㄷ’자형 건물의 교육행정동

석가탑! 영산불교 현지사예 우뚝 솟아 석가모니 부처님의 실존을 증명하다!

대적광전에 이은 지구촌 보물 2호 ‘현지사 석가탑’, 소원성취와 업장소멸을 이루어주는 중생들의 복전(福田)이 되다



오색무지개가 걸려있는 석가탑

2600년 전에 반열반에 드신 석가모니부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모든 부처님들은 반열반 이후 연화장계의 자신의 원만보신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남성부주 중생을 제도하고자 할 때 부처님들은 무량광 및 세계 연화장계에서 자신의 원만보신을 남겨두고 영혼체가 빠져나와 육신의 몸을 받게 됩니다. 이 육신의 몸을 응화신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2600년 전 인도에서 성도(成道)와 열반(涅槃) 상을 방편으로 보인 것일 뿐

<법화경 여래수량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도 육신의 멸도 후에 원만보신 노사나불로 회귀하여 계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정도? - 유심정토(唯心淨土)의 오류

정도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세계 연화장계가 실재하는 것처럼 보실들이 머무는 정토세계도 실재로 있습니다. <정토삼부경>에서 설하고 있는 서방극락세계는 방편이 아닙니다. 정토는 아라한이 머무는 색계(色界)의 유정천을 지나 삼계 밖에 부처님의 원력으로 건립된, 보살들이 머무는 해탈열반의 세계입니다. 이 정토에서 각각의 부처님들이 보살들을 교화하고 계십니다. 아미타부처님의 서방 극락정토, 약사여래부처님의 동방 정유리정토, 다보여래부처님의 보정정토 등이 있습니다. 미륵보살님이 계신는 도솔천의 내원궁은 부처님을 낳은 부모님들이 가는 높은 하늘세계이지 정토는 아닙니다. 일부 불자들은 선종(禪宗)의 영향을 받아 ‘마음이 바로 정토’이지 마음 밖에 따로 정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전혀 잘못된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정토 - 영산정토(靈山淨土)

석가모니부처님의 정토는 다른 부처님들과 달리 사바세계 남성부주 안에 있습니다. 서방극락정토나 동방정유리정토 보정정토는 모두 윤회세계인 삼계를 벗어나 있지만 석가모니부처님의 정토는 남성부주 인도 영취산 상공에 있습니다. 이를 영산정토, 혹은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영산궁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정토가 하늘세계도



석가탑의 석가모니부처님

아니고 인간세계에 있는 것은 석가모니부처님의 본원력으로서, 남성부주 중생을 교화하는 남성부주 교주(敎主)의 책임을 스스로 떠맡으셨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법화행자들은 이 남성부주를 부처님의 정토로 보는데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천태종을 개창한 천태지의 스님은 ‘영산일회 연연이산(靈山一會 歷然未散) - 영산 당시의 모임이 엄연히 아직도 흩어지지 않고 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법화상에 속하는 영산정토 영산회상의 한 정원을 목격한 것입니다.

법화경 여래수량품에서의 영산정토

법화경에서는 부처님 스스로 다음과 같이 영산정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이 국토를 건(劬)의 불에 타 없어지고 공심 공포 온갖 고뇌가 가득한 곳으로 보지만, 나의 이 정토는 영원히 변함 없느니라. 이런 모든 중생은 약한 업의 인연으로 이승지킴 지날지라도 심보의 이쁨도 듣지 못하나, 공력을 많이 닦아서 부드럽고 화평하며 온은 사람은 모두 내

가 이곳에 있어 설법하는 것을 보게 되느니라’

석가탑 - 영산정토에 있는 무량광 빛의 탑을 재현하다

석가탑은 영산정토에 있는 실제의 탑으로서 이곳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적광전에 들기도 합니다. 현지사 석가탑은 영산정토에 있는 탑의 형상을 보며 8각의 정자 형태로 조성했습니다. 4각 형태의 다보탑과 함께 석가탑은 불법의 진리 즉 4성제와 8경도를 각각 상징합니다. 현지에서 석가탑을 조성한 이유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실존을 증명하고 현지사가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왜계신 부처님 화상임을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강 법약(魔強法弱)의 말법시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변치 않는 우주적 진리임을 만행(萬邦)에 선포하여 왜소화되고 왜곡되어 쇠잔해진 불법을 쇄신하고 중흥하여 새로운 정법시대를 개창하기 위해서입니다.



초파일날 불자들이 탑돌이를 하고 있다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고성분원 정기법회
9월 1일(월) 오전 9시
※ 추석연휴 관계로 법회를 앞당겨서 개최합니다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론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야 할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47회제)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 033)681-5515